

일본문화의 힘, 원천을 캐다!

# 《일본문명의 77가지 열쇠》

글\_정혜경(도서출판 창해 편집부)

〈올드보이〉 〈미녀는 괴로워〉 〈검은 집〉.

최근 나온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는 이렇듯 일본 대중문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는 일본 문학도 마찬가지.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에서 시작한 일본소설 붐은 오쿠다 히데오, 에쿠니 가오리 등으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미야베 미유키, 히가시노 게이고, 이사가 고타로, 온타 리쿠 등 추리소설 작가들의 인기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황석영, 공지영, 김훈 등 몇몇 스타 소설가를 제외한 국내 소설은 전혀 팔리지 않는다. 과연 이렇듯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문학의 힘, 그 원천은 무엇일까?

소설가 박민규 씨는 “일본문학이 그만큼 앞섰기 때문”(2007년 계간 〈문학동네〉 여름호)이라 했고, 소설가 김훈 씨는 “일본문학이 우리와는 달리 문학적 권위를 버리고 대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2007년 7월 1일자 연합뉴스)이라 했다 한다. 그러나 진지함을 잃고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담론은 한 번쯤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매년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오는 망언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우리에게는 특히 그렇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문명의 77가지 열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 책이 정답을 제시해주는 것은 못한다. 다만 그 원천을 캐는 작업에 곡괭이 역할 정도는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인 스스로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일본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장점이다. 때때로 일본인의 자기우월적인 역사 의식에 혀를 내두를 때도 있을 테지만, 스스로의 문명을 과학적, 역사적 그리고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한 모습은 가상하다.

단적인 예로 삼나라라는 지리학적 특성으로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 등 각종 종교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피로 얼룩진 기독교나 이슬람교 전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정반대이다. 또한 그러한 지리학적 요소로 대륙의 영향을 적게 받다 보니 대의 명분에 치우치지 않고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에 관심이 많아 예로부터 사소설이 매우 발달했다는 평가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노가타리로 대표되는 이 사소설은 현대 일본소설의 원조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책 편집이 모두 끝난 이후, 항상 공황상태에 빠진다. 좀더 내실 있는 책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잡은 콘셉트가 맞은 것이었나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한다. 아무쪼록 《일본문명의 77가지 열쇠》를 곡괭이 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일본문명 비평서가 나오기를 바란다. ☞

《일본문명의 77가지 열쇠》  
우메사오 다다오 편저 | 최경국 옮김 | 창해 | 352쪽 | 값 15,000원



# 수학자이자 고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밝힌 책 《되살아나는 천재 아르키메데스》

글\_박창원(도서출판 일출봉 편집장)

사실 조금 당황스럽다. 무어라 딱히 풀어나갈 스토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부끄러운 얘기지만 워낙에 인문적 소양에 익숙한 인생이 자연과학 서적을 출간하고,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아직 체질에 맞지 않다.

이리저리 궁리해 보지만 기대하는 만큼 무엇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뻔한 일이다. 나름대로 갖다 붙이자면 사연 없는 대상이 있겠나만은 그러기에는 양심이 간지럽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양피지로 만들어진 낡은 기도서가 경매사 예상이 12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200만 달러에 낙찰됨으로써 그 가치와 숨겨진 비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이후 과학의 힘을 빌려 한 꺼풀씩 벗겨지는 책의 비밀은 2,000년의 세월을 넘나든다. 천재 아르키메데스의 부활을 예고하며, 마치 추리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책은 천재 수학자이자 기술자였던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설령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한 번쯤 책을 손에 들었다 놓을 만큼 미스터리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되살아나는 천재 아르키메데스》는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을 전하는 'C사본'이라는 매우 진귀한 자료가 재발견되어, 다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C사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아르키메데스의 탄생과 삶과 죽음, 그와 관련한 일화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 고찰을 통해 아르키메데스가 천재 수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피고 있다. 2,000년이란 세월을 건너뛰어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온 C사본의 발견을 계기로 고대 저작물에 관한 이해, 필사본이 탄생하는 과정과 사라지는 과정 등을 통해 수 세기 간 사라졌다 극적으로 되살아난 C사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00년대 초반 그리스 수학사 연구자 하이베르크에 의해 그때까지 누구도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에라토스테네스에게 보내는 기계학적 정리에 관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저작물의 발견은 이후 이 책이 사라졌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재발견되어 200만 달러라는 큰 액수로 팔리는 계기가 되고, 맹렬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C사본은 놀라운 수학 천재의 이론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되살아나는 천재 아르키메데스》는 일본 오사카 부립대 인간사회학부 사이트 켄 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그가 '그리스 수학사'를 전공했다는 사실은 이 책이 단순히 수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수학자를 소재로 한 인문서에 가까운 책임을 증거한다. 역자인 조윤동 선생의 말을 빌려 좀 더 정확히 정체성을 밝히자면,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 대해 수학사적 관점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자연계라고 하면 우선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한글**

《되살아나는 천재 아르키메데스》  
사이트 켄 지음 | 조윤동 옮김 | 일출봉 | 186쪽 | 값 9,700원



# 어느 '게으른 산책자'의 뉴욕 문화 일기 《뉴욕 걷기》

글\_윤동희(도서출판 북노마드 대표)

30대 여성 큐레이터가 미술관을 그만 두고 뉴욕에서 1년 동안 머물며 바라본 여행 에세이. 《뉴욕 걷기》를 굳이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다. 큐레이터, 미술관, 뉴욕, 그리고 여행... 한때는 제법 근사해 보였던,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닌, 그렇고 그런 조합들이다. 넘쳐나는 여행서,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부쩍 눈에 띄는 뉴욕을 테마로 한 여행서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책을 내야겠다고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채영이라는 저자를 믿기로 했다. 본래 나는 미술기자로 일했다. 저자와의 만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원에서 영상미술을 전공한 나는 다른 곳과 달리 광화문에 자리한 일주아트하우스를 즐겨 찾았다. 언제든 영상미술을 만날 수 있는 곳, 좀 더 시간을 내면 지하에 있는 씨네큐브에서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저자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점점 내 발길이 잦아지면서, 기자와 큐레이터 사이의 예의 바른 인사말은 작품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고, 미술은 물론 영화와 책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로 그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2년 전 어느 날. 서울의 한 구석에서 책을 만들고 있던 내게 '자유인'이 되어 버린 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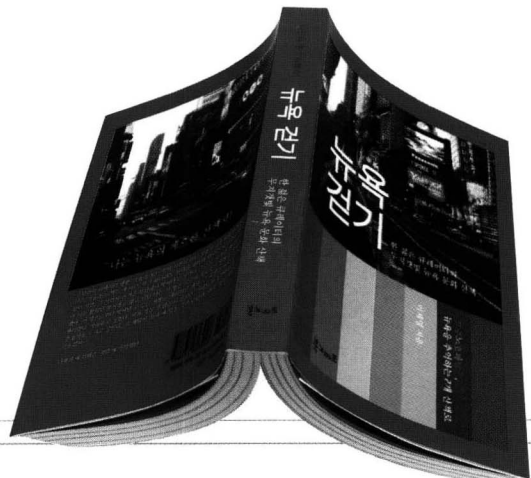
“미술관 그만 두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왜...?”  
“뉴욕에 갑니다.” “아, 그래요? 좋은 곳이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네? 어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며칠 후, 나를 찾아온 저자는 자신의 병명을 불러주었다. 감정 불감증. 아무리 좋은 작품을 보아도 감흥이 일지 않는, 아무리 좋은 전시를 준비해도 흥이 나지 않는 자신을 본 순간 겁이 덜컥 나더란다. 저자가 스스로 내린 해답은 긴 여행. 장소는 뉴욕.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그냥 뉴욕이라는 생각뿐이란단다. 20세기 초 발터 벤야민이 그리 했듯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게으른 산책자'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현대미술은 기본이요 영화, 뮤지컬, 만화, 문학, TV 등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전반에 걸친 '잡식성' 관심을 자랑하는 저자의 '심미안'을 믿기로 했다. 뉴욕을 자본주의적 욕망의 도시로만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문화'를 중심에 두고 적어 내려가는 책이 한 권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1년 후, 저자는 약속을 지켰다. 뉴욕의 물질문명이 아닌 정신문명을 훑어 내려간 그녀의 글은 감성과 지성이 적당히 어우러져 있었다. 저자의 문화 산책을 일곱 개로 쪼갠 뒤, 각 산책로에 무지갯빛 테마를 입히기로 했다. 화사한 현대미술은 빨강, 센트럴파크는 초록, 동성애 등 하위문화의 산실인 빌리지 산책은 보라색 등 각기 개성이 묻어나는 뉴욕의 산책로와 색채를 조합해 나갔다. 그래서였을까. 최근 '대박'을 터뜨린 책을 기념해 전 직원이 뉴욕에 다녀온 한 출판사의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덕담을 건네 왔다. 뉴욕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것 같다고, 뉴욕의 문화지도를 간결하게 잘 압축해 놓았다고. 무엇보다 반가운 얘기는 바로 이것이었다. 다음 뉴욕 여행 때는 이 책만 들고 가도 충분 하겠다고. 📖

《뉴욕 걷기》  
이채영 지음 | 북노마드 | 320쪽 | 값 12,000원



# 신비와 공포, 초자연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환상의 서재 〈기담문학 고딕총서〉시리즈

글 \_ 권한라(생각의 나무 편집부)

어린 시절, 누런 종이에 삽화도 조잡하기 짝이 없던 해적판 냄새 폴폴 풍기는 책이었건만 꼬맹이 독자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게 한 책이 있었다. 《마녀의 관》이라는 제목만 유난히 눈에 띄던 책. 여기에는 꼬맹이가 읽어온 '착하고 밝은'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원한을 품고 인간을 응징하는 마녀나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돼 미쳐버린 인간들의 활극이 펼쳐지곤 했다.

기괴한 그 이야기들에서 인간성 깊은 밑바닥에 도사린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통찰했다거나 허무에 떠는 불안한 영혼을 직관했다는 등의 진지한 총평은 접어두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 봐도 '비호감' 인이 이야기들이 어린 나로 하여금 소용돌이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분노건 원한이건 슬픔이건 절망이건 기괴한 이야기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생생한 감정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렇게 다크한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던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세마냥 18세기에서 20세기 고딕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엄선한 〈기담문학 고딕총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시리즈는 에드거 앨런 포, 기드 모파상, 니콜라이 고골, 이디스 워튼, 찰스 디킨스 등 기라성 같은 세계 문학가들의 숨겨진 환상결작과 라프카디오 헨, 이즈미 교카, 다프네 뒤 모리에, 세리던 르 파누 등 뺏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로 독자들을 전율케 했던 작가들의 작품 스무 권 가량이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온다 리쿠가 오마주를 바친 메이지 일본 환상문학의 거장 라프카디오 헨의 《괴담》과 에드거 앨런 포의 《붉은 죽음의 가면》을 거쳐 내면의 근원적 공포를 묘파(描破)한 모파상의 《오를라》까지 총 여덟 권이 출간되었다. 시리즈 담당자로서 작품에 맞는 도판을 손수 고르고 직접 작가 연보를 정리하는 등 책 한 권 한 권에 정성을 들일 때마다, 나는 작가들과 지금 여기에서 함께 숨 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들이 형상화한 날카로운 고통의 감각, 사랑과 분노를 보며 나는 그들을 광기로 내몬 고통에 주목하게 됐고, 혐오스러운 인간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매혹되기까지 했다.

특히나 어린 시절, 내 정신을 쫓 빼놨던 《마녀의 관》을 니콜라이 고골의 〈비이〉로 다시 냈을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물론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함께 문을 연 고딕카페 회원([http://cafe.naver.com/gothicbook\\_cafe](http://cafe.naver.com/gothicbook_cafe))들과의 만남 역시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에 잠들지 않는 전설 하나쯤은 간직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이런 사랑에 힘입어 이후에도 〈기담문학 고딕총서〉는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가장 기괴하고 오싹한 세계를 펼쳐 보이며 한다. 최초의 여성 흡혈귀가 등장하는 세리던 르 파누의 《카르밀라》와 히치콕의 사랑을 받은 다프네 뒤 모리에의 《새》 《레베카》는 나 역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대되는 작품들이다. 올 가을 어두운 세계를 복권하는 고딕문학 작가들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직시해보는 건 어떨지. **추천**

〈괴담〉(기담문학 고딕총서 1)  
라프카디오 헨 지음 | 심정명 옮김 | 생각의 나무 | 187쪽 | 값 9,800원  
〈오를라〉(기담문학 고딕총서 8)  
기드 모파상 지음 | 최정수 옮김 | 생각의 나무 | 284쪽 | 값 11,000원

